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73
2024 April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73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물, 다시 태어나다

FLOW

자연 생태계의 보고
화성의 매력

ON

선택 아닌 필수!
물 재이용

HOPE

물로 여는 새로운 내일,
워터 포지티브

2024년 4월호





소중한 물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워터 포지티브로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과 미래로 돌려보내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물 재이용



워터 포지티브



kwater__official



#kwater워터포지티브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워터포지티브를 검색하고 <#kwater워터포지티브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워터포지티브를 검색
→ <#kwater워터포지티브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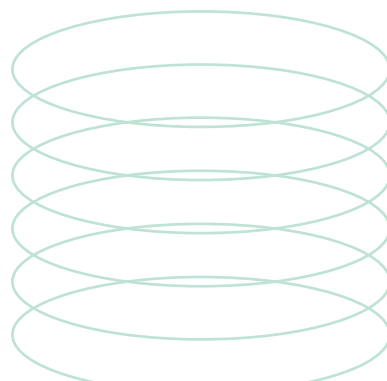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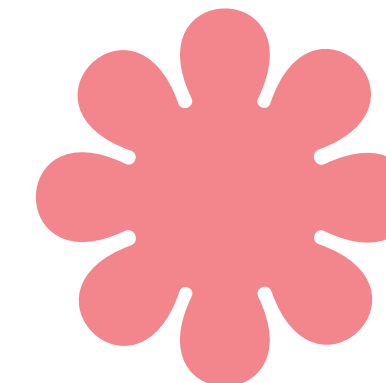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접수 마감일 4월 20일

선물 발송일 4월 30일경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독자 참여 안내



마음상담소

마음이 힘든 고민이 있나요? 혼자 간직했던 고민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담해드립니다.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건강물음표

물과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물과 관련된 건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응모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의 소리

사보 및 웹진을 읽고 난 뒤 여러분의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후기 및 원하시는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웹진



검색창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웹진을 검색해 보세요!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4 April Vol. 673



COVER STORY

화성이 조선 후기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 이장을 위해 만든 조선 최초의 계획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금은 신도시의 화려한 경관과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4월의 봄꽃이 내려 앉은 용릉과 건릉부터 최근 큰 주목을 받은 공룡알화석산지와 송산그린시티 전망대 등을 표지에 담았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4년 4월 1일
통권 673호 **편집** 홍보실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큐라인

FLOW

물과 함께 흐르다 **화성 편**
물길을 따라 만난 삶과 사람, 여행



- 10 **물길 따라 걷다**
어느 눈부신 날,
화성의 봄
- 16 **이야기로 물들다**
흥미진진한 'K-공룡'
오프 더 레코드
- 18 **물처럼 살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행복한 일상의 단상
- 20 **수(水)타벅스가 간다**
새로운 도시의 지평을
여는 사람들, 송산사업단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ON

지속가능한 일상을 만든다
선택 아닌 필수! 물 재이용



- 26 **Insight ON**
버려지는 물의 재탄생,
물 재이용
- 30 **ONterview**
온전한 水처리를 실현하는 사람들
프라임텍인터내셔널
- 32 **ON the world**
강으로 흘러 들어
다시 태어나는 도시, 도쿄
- 36 **ON전한 지구**
스치듯 지나가는 봄의 흔적
- 38 **ON 챌린지**
싱그러운 일상 속으로!
가드닝 ON

HOPE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다
물로 여는 새로운 내일, 워터 포지티브



- 40 **K-water 리포트**
자연과 인간의 미래를 위한 노력
워터 포지티브
- 44 **K-water 포커스 ①**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
- 46 **K-water 포커스 ②**
세계 물의 날 기념식·국제물산업박람회 참가
- 48 **K-water News**
- 50 **어느 멋진 날**
나의 오랜 친구, 나의 오랜 가족
'보리'와 함께하는 가족사진 촬영
- 55 **이슈체크**
- 56 **마음상담소**
- 58 **문화산책**
- 60 **릴레이 챌린지**
- 62 **K-water SNS**



QUIZ EVENT

4월호 사보와 함께하는 빈칸 맞추기

아래 빈칸에 들어갈 알파벳 2개를 맞춰주세요!

ater ositive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복원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달성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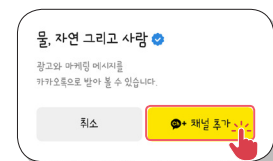
HINT. 41페이지 <K-water 리포트> 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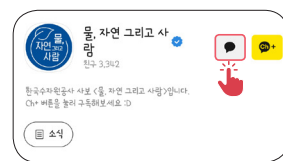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2 채널 추가



3 1:1 채팅방 클릭



4 채팅방에 정답 보내기
(정답/이름/주소/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텀블러 2명 접수 마감일 4월 20일 선물 발송일 4월 30일경



CHAPTER 1

FLOW



물과 함께 흐르다

겨울 철새들이 떠나자 드넓은 평야와 갈대 숲 사이로
봄바람이 새 숨을 불어넣습니다.
수억 년 전 생명의 흔적부터 매 계절마다 선명히 새겨지는
화성의 변화무쌍한 면모를 소개합니다.

FLOW

어느 눈부신 날, 화성의 봄

화성호를 따라 자박자박 걷기 좋았던 봄날의 하루. 물결은 종일 햇살처럼 튀었고 갈대는 바람 따라 흔들렸다. 미처 몰랐다. 철새를 품은 습지가 이토록 아름다운지. 해운산에 올라 수평선 위로 가늘게 뻗은 낙조는 숨 막히는 절경 그 자체였다. '그렇지, 이게 서해의 맛'이지 했다. 경계를 길 삼아 바다와 호수 사이, 호수와 산 사이, 호수와 농지를 이어 걸었다. 시간은 여유롭지만 허전하지 않게 흘렀고, 풍경은 완전히 겨울을 지나 봄의 어귀로 흐르고 있었다.

글 이시목(여행작가) 사진 이시목, 화성시청

SPOT 1 ● 화성호와 습지

10:00

화성호는 우정읍 매항리와 서신면 궁평리 사이를 연결하는 화성방조제가 건설되어 만들어진 인공호수다. 방조제 주위에는 거대한 습지가 있어 매년 봄이면 도요새 물떼새들이 찾아든다. 화성호 주변 습지는 지난 2018년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의해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 보존 지역으로 공식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거닐며

내내 비와 흐린 날씨가 이어졌던 3월이 지나고, 넓은 화성의 대지 위에도 서서히 봄의 초록빛이 물들기 시작한다. 화성을 여행한 이날은 가을인 듯 갈대가 무성했고, 겨울의 여느 날처럼 철새들 무리 지어 날았다. 봄벌 푸지개 쏟아지지 않았더라면, 초록빛 알개 스민 갈대의 밀동을 보지 않았더라면, 여지없이 겨울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봄은 그렇게 아리송하게 밀고 당기는 계절이 아니던가. 화성의 4월은 그토록 모호한 풍경으로 빛나는 간절기였다. 정체성이 불분명해 더 끌리고, 두 계절이 혼재돼 보다 매혹적인. 습지나 기수역(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을 오랜 시간 좋아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바다와 호수처럼 성질이 다른 두 공간 사이나 언저리에 불분명하게 걸쳐져 있는 습지의 매력. 무엇보다 풍경에 고유성이 짙어

좋아하게 됐다. 우음도처럼, 개발이 더더 자연스럽게 평범하지 않아 여행의 묘미가 더한 곳이 바로 화성이다. 그 '사이'란 공간이 갖는 모호성에 끌려 화성을 찾았고, 경계지 특유의 '익숙한 듯 낯선' 풍경에 흠뻑 젖어 종일 이곳을 맴돌았다. 자연에서 경계지는 주로 완충지대를 뜻한다. 경기 서남쪽 해안에 있는 화성은 독특한 경계지가 많은 도시 중 하나다. 바다와 호수를 경계 짓는 방조제가 여럿 있고, 물과 섬을 잇는 노들길도 선명하다. 덕분에 화성을 여행하는 일은 늘 경계를 넘나드는 기분이었고, 이를 누빌 때마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기수역의 풍경이 좋다. 4월에 화성을 찾아 거닌다는 것은 시·공간의 '사이'를 만끽한다는 뜻일 것이다.

▼도요새, 저어새 등이 머무는 화성습지의 화성호 풍경.



SPOT 2 ○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12:00

50여 년간 미 공군사령부의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던 '쿠니사격장' 부지를 공원으로 재단장한 곳. 33만 3천578㎡ 면적에 습지원, 초화원, 매화숲 등을 조성해 놓아 봄날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고, 너른 잔디마당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산책로를 따라 가볍게 걷기에도 좋다. 방문 적기는 유채꽃 만발하는 4월 하순경이다. 공원 내에는 평화기념관과 화성시 공예문화관이 있다.

화성호에서 발견한 봄의 소식

화성에서 경계지의 풍경이 가장 도드라지는 곳은 시화호와 화성호다. 그중 걷기에는 화성호가 제격이다. 화성호는 화옹지구 간척농지 개발을 위한 방조제를 설치하면서 생긴 인공호수로, 그 언저리에 거대한 습지를 품고 있다. 첫걸음은 화성방조제에서 시작하는데, 제법 긴 구간의 습지를 따라 흐른다. 갯벌습지와 염습지, 민물습지, 호수가 모두 존재해 생태자원적 가치가 높다는 화성습지는 물갈퀴가 없어 물에 뜨지 못하는 도요새 물떼새들이 만조 시 바닷물을 피해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파도가 급히 밀려올 때마다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으니 봄철 이곳에서는 누구든 오래 멈춰 응시해 볼 일이다. 때때로 갈대숲 사이에서는 호숫물 출렁대는 소리도 들릴 테니 슬그머니 자연의 소리에 귀를 열고 걸어 봐도 좋겠다. 기다랗게 뻗은 방조제를 따라 걷다 보면 남쪽 끝자락에 있는 매항리 평화생태공원에 다다른다. 과거 미군의 폭

격 훈련장이었던 이곳은 포성이 멎은 후 아끼자기한 공간이 됐다. 유채꽃 일렁대는 산책길을 걷다 어디든 앉으면, 노란 꽃 넘어 낮은 언덕에서 바다를 응시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만난다. 비록 동상이지만 누군가의 등을 오래 바라보는 것은 늘 마음을 가만히 풀어내리게 만드는 일. 그 이의 애쓴 걸음이 애쓴 삶 같아서. 그러다 어느 순간엔 내 삶의 어느 대목이 문득 안쓰러워져 울컥할지도 모른다.

▼ 세계 건축 거장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전망대.





▲ 화성방조제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등대. 방조제를 중심으로 바깥쪽이 바다, 안쪽이 호수다.

SPOT 3 ○ 궁평항

16:00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내륙을 오목하게 파고든 포구를 중심으로 북측에는 바다 위를 거닐 수 있는 해안산책로가, 남측에는 해상 낚시터가 조성돼 있다. 방파제 고틀머리쯤에 있는 정자(궁평루)가 일몰 포인트로 꼽힌다. 화성시 해변 쪽을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화성실크로드 산책로 나무 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바다를 끼고 유유자적 걷기 좋다.

호수와 바다가 붙어질 무렵엔

길게 뻗은 방조제가 산티아고 순례길마냥 한없이 걷기에 좋지만, 그 길이 고루하게 느껴진다면 단숨에 돌아와도 좋다. 고즈넉한 항구, 궁평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시끌벅적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궁평항은 한때 애착 여행지였던 곳이다. 마음 쓰라릴 때마다 또 무겁게 내려앉을 때마다, 내륙으로 오목하게 패인 항구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마음이 오목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잠겨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잠시 바다 위로 길을 낸 데크를 걸어 바다에 닿았다. 목을 길게 빼고 내려다본 바다는 고요히 소란했다. 밀려드는 중인 것이다. 궁평리가 품은 해안에서는 모래와 파도, 노을과 함께 기암절벽까지 가세해 바다와 물의 경계를 지키는 듯했다.

Info 1

화성의 맛, 바지락칼국수

질 좋은 갯벌을 품은 것으로 유명한 화성은 2월부터 시작해 4월까지 바지락이 제철이다. 썰물 때면 최대 4km까지 드러나는 갯벌에서 굵고 싱싱한 바지락이 넉넉하게 채취돼, 예부터 바지락을 주재료로 한 요리법이 발달했다. 그중에서도 바지락과 해산물을 푸짐하게 넣어 국물이 시원한 바지락칼국수가 별미. 제부도와 궁평리 해안에 바지락칼국수를 내는 식당이 여러 군데 있고, 제부도 진입로 등지에도 식당이 있다.



궁평항에서 바다를 등지고 다시 호수에 바짝 붙어 걷는다. 왼쪽은 간척농지이고 오른쪽은 호수다. 호수와 농지 사이를 간드러진 'S자형'으로 지나는 자전거도로가 '화성호 둘레길'이다. 햇살 환한 날이면 호수에 내린 봄별이 저녁 무렵까지 별 무더기처럼 찰랑대 마음 오래 흐뭇하다. 여행의 마지막 길은 해운산이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겸 뉘엿거리는 서해의 낙조를 벗 삼아 천천히 산에 오른다. 해운산은 낮지만 멀리 바라보기에 좋은 곳이다. 들녘이 지평선을 길게 펼친 솜씨를 바라보기에도 좋고, 바다와 호수를 가로지르는 방조제를 바라보기에도 좋다. 바다와 호수 사이에 있는 습지도 한눈에 담고 싶어 올랐다. 걸어온 하루가 붉게 물들고 저무는 동안, 하늘에는 어느새 조각달이 떴다. 水

Info 2



▲ 해운산에서 바라본 일몰. 입파도와 국화도 등 서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 뒤로 해가 저문다.

해운산

해발 142m로,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정상에 서면 궁평항 일대 바다와 화성호가 한 눈에 보인다. 일출과 일몰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다. 산행기점은 왕모대와 해운초등학교. 왕모대에서는 40여 분, 해운초등학교에서는 20여 분이 걸린다.

▼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조성한 궁평항의 해안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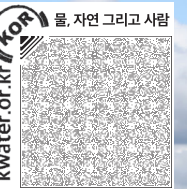




흥미진진한 'K-공룡' 오프 더 레코드

공룡 이름을 줄줄 외우던 6살 조카의 입에서 특이한 이름을 들었다. 이름하여 '코리아케라톱스'. 조카의 상상력 속 이름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1억 년 전에 존재했던 공룡의 이름이라는 사실. 게다가 이 공룡은 국내 아니 세계 최초의 뿔공룡이라는 점이 놀랍다. 화성시에서 발견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와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를 전한다.

글 김영은 사진 화성시청 참고 문화유산채널



▲ 공룡알화석지 풍경.



기적처럼 발견한 1억 년 전 K-공룡의 흔적

화성시 송산면에 위치한 공룡알화석산지는 수백 개의 공룡알이 발견된 세계 3대 공룡알 화석지 중 하나다.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은 지난 1999년 시화호 간척지 생태계와 지질 변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화성시에서 발견한 300여 개의 공룡알 화석은 약 1억 1천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대부분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곳은 중국이나 몽골 등지였기에 이는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마침내 이곳은 2010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공룡알 화석 발견으로 개발되지 않고 거대한 자연 습지로 남았다.

이후 공룡알화석산지가 자리한 화성시에서 17km 떨어진 전곡항 방조제에서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뿔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 공룡의 학명은 '화성에서 발견된 한국 뿔공룡'이라는 뜻의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로 정해졌다. 또한 뿔조각이 아닌 원형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며 발견된 것을 크게 평가받았으며, 국제적으로 고유성을 인정받아 신종 각 룡류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화석 발견에는 특이점이 있다. 화석이라 함은 지층에 묻혀 있어야 하는데, 발견된 곳이 제방 위였다는 것. 어디인지 모를 지층 속에 숨겨져 있던 돌을 채석해 이곳으로 옮겨 제방을 만들다 발견했으니,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운이 아닐 수가 없다.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극적이라는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처럼, 독자 여러분께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

코리아케라톱스의 화석을 직접 보고싶다면?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659
운영시간 오전 9:00~오후 5:00(월요일 휴관)
전화번호 031-5189-3805~380

*해설이 필요하다면 7일 전에 방문자센터에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우천 시에는 산책로 입장이 금지된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일상의 단상

화성은 정말 매력적인 도시다. 도시와 농촌이 풍경이 조화롭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곳, 드넓은 부지와 날로 달라지는 화성의 모습에 시민들은 부푼 기대와 행복에 가득 차 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화성의 사람들을 만나봤다.

글 문수민 사진 각 인터뷰이 제공



남양읍행정복지센터 농업직 조찬미 님

‘기회의 땅’에 살고 있어요!

남양읍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조찬미 씨는 올해로 4년째 공무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화성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그녀는 화성시 사랑을 이어갔다. 최근 화성시는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경기도 재정자립도 1위 도시로 등극했다. 조찬미 씨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화성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동탄신도시, 서해안의 제부도 등과 같은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덕분에 시민들은 도시 생활과 더불어 자연주의 생활을 함께 영위해 나갈 수 있죠. 특히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이곳, 화성을 추천합니다!”

조찬미 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곧 복귀를 앞두고 있다. 동탄, 병점, 향남 등 화성시 곳곳에는 화성형아이키움터가 있다. 언제 어디서든 방문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것은 물론 장난감 대여와 놀이방 이용이 가능해 애용하고 있다는 조찬미 씨.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의 든든한 지원 정책들 덕분에 복지이라는 새로운 출발이 두렵지 않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화성시청



화성시에서 다문화 가정을 꾸린 박준호 씨의 가족사진.



온라인 쇼핑몰 대표 박준호 님

화성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도시예요

화성시 제조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또한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편에 속한다. 화성시에 거주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박준호 씨도 베트남에서 이민 온 아내를 만나 다문화 가정을 꾸렸다. “화성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외국인 진료도 가능한 곳도 많고요. 아내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말이 서툴렀을 때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화성시는 외국인 복지센터,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자치활동 지원 등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덕분에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화성시를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라 말하던 박준호 씨는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살짝 내비쳤다.

“화성시는 경치 좋은 바다와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예요. 아이와 함께 가볼만한 곳이 많죠. 새솔동을 포함해 송산그린시티가 생기면 주변 지역 간 유대도 더 깊어지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경기사 강동완 님

새로운 도시에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

2009년부터 조경 관련 업무를 시작해 베테랑으로 자리 잡은 강동완 씨. 그는 현재 송산면에 거주하며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남측지구 1단계 조경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고향 전라도를 떠나 화성시에 터를 잡게 된 그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화성시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전국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데, 화성시에 와보니 자연환경이 아름답다는 점이 특히 좋았어요. 가장 인상적인 곳을 꼽자면 공룡알화석산지 부근의 드넓은 갈대밭을 추천하고 싶어요.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요. 또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하는데, 바닷가가 인접해 있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행복합니다.”

강동완 씨에게는 특별한 직업병이 있다. 조경 업무를 하다 보니 어디를 가든 가로수와 공원 등을 유심히 보는 것. 화성시의 가로수와 녹지 수목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즘 부쩍 제 주변에서도 송산그린시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산과 들이었던 곳들이 하나 둘 변해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이러한 변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강동완 씨가 직접 찍은 송산그린시티 조경공사 현장.





누군가
도시의 미래를
물거름
배를 들어
"송산
그린시티"를
만들었다!

새로운 도시의 지평을 여는 사람들, 송산사업단

K-water 내에서도 가장 큰 단지사업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송산사업단. 지난 2022년 동축지구를 준공하고, 올해 가장 면적이 넓은 서축지구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건 희망을 건설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터.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자부심에 가득 찬 송산사업단을 만났다.

글 김영은 사진 김은주 영상 이승구



명품도시 송산그린시티
스무번째 배달지

여의도 17배에 달하는 송산그린시티

지난 2007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K-water 내 최대 단지사업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송산그린시티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새솔동, 남양읍 일원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면적은 55.59km²(여의도의 17배)에 달한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시화호 주변으로 생태 환경과 관광-레저, 주거가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도시 조성 사업이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water 송산사업단에는 현재 5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동축지구 준공 후 현재는 남측과 서축지구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남측 지구에는 산업단지, 연구시설, 자동차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서축지구에는 리조트, 에듀타운, 도심 운하 등이 계획되어 있다.

올해는 송산사업단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 가장 면적이 넓은 서축지구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기 때문. 수(水)타벅스가 방문한 이 날은 특히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송산그린시티 서축지구의 본격적인 착공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식목행사를 진행한 것. 행사에는 도시본부장, 송산사업단 직원들과 더불어 건설관계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기념 식수와 제막식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이 아는 듯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Good!



Hello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2024년은 송산사업단의 사무실 이전과 서축지구 본격 착수 등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수(水)타벅스가 간다'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산사업단을 찾아왔다. 작은 골목의 주택을 지나 길 끝에 위치한 송산사업단 안으로 파란색 커피차가 들어오자 직원들이 반가운 환호성을 지른다. 신청자 박민정 대리도 두 발 벗고 마중을 나와 인터뷰에 응했다.

"송산사업단 공사 감독은 감히 '극한 직업'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면 10년 넘은 가설사무소에 물이 새곤 했고, 겨울에는 현장의 칼바람 때문에 손이 썩공 열기도 했죠. 흠으로 가득한 현장이다 보니 차량과 안전화가 더러워져 '헨젤과 그레텔'마냥 누가 어디로 갔는지 이동경로가 눈에 흰하고요.(웃음) 현장에서 휴먼지를 먹으며 고생하는 직원들이 수(水)타벅스를 통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모이는 직원들의 모습. 각양각색 다양한 파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水)타벅스가 간다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이날의 간식은 달콤 씹사름한 추로스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어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송산사업단. 현장에서 따뜻하게 튀겨낸 추로스와 시원한 음료가 함께하니 이만한 선물이 없다.

"그거 아세요? 과거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 이장을 위해 만든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가 바로 화성이라는 사실요. 지금 화성은 인구 100만 명 달성, 재정자립도 1위, 지역 내 총생산 1위 등으로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했답니다. 그런 곳에 명품 송산그린시티를 세운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큰 자부심이에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규 부장이 자부심을 내 보인다.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화성시, 이곳에 새롭게 자리잡아 많은 이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송산그린시티. 앞으로 남은 일정을 무사히 완료하는 그날까지, 송산사업단의 구슬땀이 이곳에 단비가 되어 비옥한 도시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

Fun!



Mini Interview

송산사업단 도시경관부
박민정 대리



성공적인 사업,
분양 활성화,
건설관계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수(水)타벅스가 간다'에 어떻게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을까 고민해오다가 올해 서축지구의 본격적인 착공을 같이 기념하면 좋을 것 같아 정성스럽게 사연을 써서 신청했습니다. 수(水)타벅스 덕분에 동고동락한 동료분들과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된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네요. 바쁜 업무 중에 큰 활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공사 감독 업무가 쉽지만은 않지만, 서로 도와가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들이 있어 항상 든든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했으면 좋겠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



CHAPTER 2
ON

송산그린시티 본격적인 서측지구 공사 추진!
서로에게 건네는 응원의 메시지♡

송산 명품도시 화이팅!!!
송산 공사구분 화이팅!♡

공사구분
모두
화이팅!!!
수메이화♡

서측지구 화이팅♡

송산사업단
2050년까지
꼭 완공 ~!!

송산그린시티 화이팅~강

송산그린
앞으로
24.3.15 - 2차

송산
Fighting ♪

송산사업단
화이팅 ~♡

다저운 20년, 절친한 20년 명품 송산의 기대해 주세요!♡

4차산업혁명 리원지구 경기분영

2024년 모두 안전·행복·건강
송산사업단 되세요~!

100만 화성특례시, 송산그린시티가 선도합니다.

송산 화이팅~♡

송산그린
우리는 하나♡

HAPPY
SONGSAN♡

도시본부
송산사업단♡
조영
화이팅♡
도시경관부

☆ 많관부 ☆
박민정

꽃이
반짝
반짝
반짝
반짝

송산
하하하
하하하

*송산사업단 직원들이 손수 적은 응원 메시지입니다.

송산사업단

물리페이지



지속가능한 일상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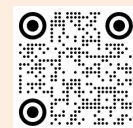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자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인 물 재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ON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물의 재탄생,

물 재이용



물 재이용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에 있어 주요한 미래수자원 기술이다. 한정적인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극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 재이용 산업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자료 K-water 산업용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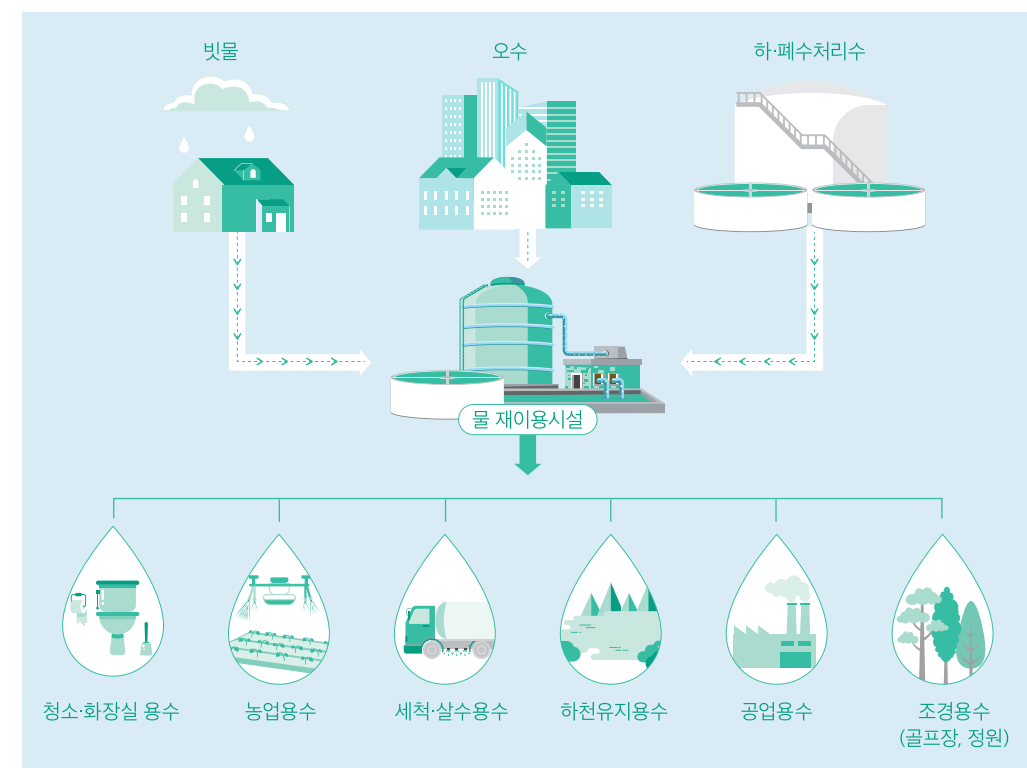
못쓰게 된 자원의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 즉 '재활용(리사이클링)'은 오래전부터 생존을 위해 인류가 제시한 해결책 중 하나다. 무한한 자원이란 없기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방법으로, 플라스틱, 종이 등 많은 종류의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은 어떨까? 지구상의 수원 또한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사용 가능한 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물 부족 문제와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다. 인구 증가, 산업화, 농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 20세기 동안 세계 물 소비량은 6.7배가량 증가하였고, 자연수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물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2050년까지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속되는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불규칙한 강수, 수온 상승 등은 물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물 재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물 재이용이란 일반적으로 사용된 물을 정화하고 다시 사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빗물, 오수, 하수, 폐수,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다. 물 재이용은 자연수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한눈에 보는 물 재이용 프로세스



물 재이용에 박차를 가하는 글로벌 움직임

유엔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로 '물과 위생'을 선정했다.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물 사용 효율을 증가시키고,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원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물 재이용은 이러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과연 세계 속 물 재이용 움직임은 어떠한가?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도 하수재이용 등 물 재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도시의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각 가정에서 사용된 물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정원이나 화장실 물 조절 탱크 등에서 재이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하수재이용 용량을 2025년까지 6배(66억m³/년)가량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물은 개인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전반의 필수 자원으로, 물 부족은 막대한 산업 피해를 자아낼 수 있다. 이에 구글, MS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공급망 전반의 물 효율 제고와 빗물, 하수 등의 재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해양으로 흘러가는 양이 많아 사용가능한 수자원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295L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반면,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량은 1,453톤으로, 세계 153개 국가 중 129위에 그친다. 더불어 하천 취수율은 36%에 달해 '물 스트레스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물 재이용 활용 방안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하수처리수를 활용해 장자호수공원 하천유지용수와 도로 자동 청소시스템 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 파주시, 경북 구미시와 포항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방류되는 물을 정화하여 공업용수로 재사용하고 있다.



K-water는 2007년 칠곡군을 시작으로 아산시, 포항시에서 하루 13만 7천 톤 규모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철강, 디스플레이 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남해안으로 방류되던 여수시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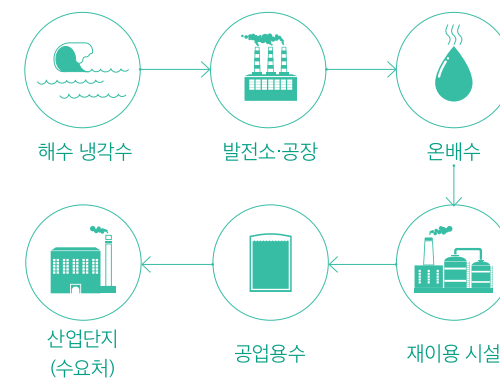
한편, 풍부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K-water는 온배수 재이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온배수란, 발전소의 생산 공정 중 발생한 열을 식히



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용된 물은 바다로 배출될 때까지 완전히 폐쇄된 관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외부물질에 오염되지 않는다. 과연 온배수를 어떻게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래 별도의 Q&A로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K-water는 이러한 물 재이용 확대 추진을 통해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하수 방류로 인한 오염을 줄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이제 물 재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K-water의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을 기대해본다. ✨

온배수 재이용 흐름도



Q

온배수를 어떻게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A 기존에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던 온배수는 재이용 시설을 거쳐 공업용수로 생산되어 인근 공장에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를 이용해 운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 방류되는 온배수 감소로 인해 해양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되죠. 현재는 발전소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으나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가산업단지의 물 수요 증가와 가뭄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수처 산업용수사업부 김선호 과장



순환하는 미래수자원, K-water의 물 재이용

온전한 水처리를 실현하는 사람들

프라임텍인터내셔널

프라임텍인터내셔널은 '수 과학(Water Science)을 연구하여 얻은 최적의 솔루션으로 인간을 위해 자연에 깨끗하게 돌려준다'는 철학으로 경영해 오고 있다. 독자적인 수처리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환경 요구에 대응하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프라임텍에 주목해 보자.

글 김영은 사진 김은주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호경 상무, 김응길 이사, 김수영 사원, 이강일 이사, 정무열 과장, 최술구 사장, 이유미 사원, 김송이 과장, 정세영 차장

프라임텍인터내셔널

Q 프라임텍인터내셔널 (이하 프라임텍)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우리 회사는 각종 산업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물을 재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약품, 설비 그리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다양한 사업경험을 통해 독자적인 국내 기술을 개발하며 수처리 전문회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Q K-water와 함께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연수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물 부족 문제가 야기되면서 하수 및 폐수 등을 정화하여 활용하는 물 재이용 기술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프라임텍은 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약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 및 검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K-water와 함께 공정 개선에 필요한 약품을 연구 및 개발하고, 현장에 맞게 적용해 나갔습니다. 혹시 해외여행 갔을 때 석회물이라던가 수질의 다른 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국내 각 지역마다 수질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프라임텍은 각 지역의 수질에 맞는 약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보일러수, 역삼투막 처리 약품 등 다양한 수처리 분야에 필요한 약품, 설비 그리고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요.

Q 'K-water와 협업해보니 이런 점이 좋았다!' 하는 것 있으실까요?

K-water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국내 물 산업의 전문가이죠. 그만큼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다 신속하게 제품 개발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K-water의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개발 제품에 대한 평가와 개발이 더 유연하게 가능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자문과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공동연구와 자문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거든요.

Q 물 재이용 사업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깨끗한 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봤을 때 물 재이용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죠. 이러한 이유로 향후 물 재이용 사업 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등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귀추가 될 분야가 더욱 확장되면서 많은 용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맞물려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물 재이용 분야의 발전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용수 확보 측면만 고려하기에는 자연수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Q 앞으로 프라임텍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현재 프라임텍은 K-water와 함께 초순수 분야의 국산화 수처리 약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약품을 활용해왔지만 해당 약품과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해외 약품을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 국내 수질에 적합한 약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텍은 국내 수처리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수처리 약품 시장까지 분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처리 전문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효과를 측정하는 파일럿 테스트 기계로 프라임텍에서 개발한 독자적 기술로 만들었다.



약품 개발이 진행 중인 테스트 제품들.



강으로 흘러 들어 다시 태어나는 도시, 도쿄

'봄날의 도쿄'하면 벚꽃이 흩날리는 강가와 피크닉을 즐기는 공원 풍경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벚꽃 잎 떨어지는 칸다가와 강물에 은어가 살고 있는 것을 아는지. 도쿄 물재생센터에서 깨끗하게 정화한 물이 강으로 방류되는 덕분이다. 벚꽃비 내리는 봄, 도시 곳곳에 청정의 강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는 도시, 도쿄를 거닐며 마천루와 강, 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만나보자.

글 우지경(여행 작가) 사진 편집실



TOKYO

하수처리수로 새로운 수원을 창출하는 도쿄

일본은 연간 140억 8,000만m³의 하수처리수 중 1억 8,700만m³, 약 1.3% 정도를 재이용하고 있다. 자연수원 고갈로 인해 물 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일본 또한 물 재이용이 '제2의 물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도쿄다.

하수처리수를 물 부족 문제 해결 솔루션 중 하나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인 것. 하수도는 오수를 처리해 도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빗물을 신속히 흘려보내 침수를 막는다. 그런 의미에서 도쿄 하수도국은 하수처리장을 '물재생센터'라고 부른다. 이곳은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 하천이나 바다로 되돌리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처리된 물을 빌딩의 화장실 용수로 이용하는 등 사용된 물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현재 도쿄 23개구, 13개의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그중 오치아이 물재생센터는 신주쿠 부도심에서 가까운 물재생센터다. 이곳에서 처리된 물 중 일부는 도쿄를 대표하는 강인 칸다가와에 방류된다. 칸다가와는 벚꽃 시즌 수많은 여행자들이 벚꽃놀이를 위해 찾는 강가이자 수질이 좋기로 유명한데 1992년부터는 은어가 돌아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Tokyo

칸다가와 강



Ochiai Park



오치아이츄오 공원 ©Bureau of Sewerag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몸소 경험하는 물의 재탄생, 오치아이츄오 공원

도쿄 내 위치한 물재생센터는 일반인들이 하수를 친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시설도 갖추고 있다. 누구나 물재생센터를 통해 실제로 하수가 어떻게 정화되는지, 하수처리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한 것. '도쿄도 무지개 하수도 전시관'은 도쿄도 하수도국이 운영하는 하수도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홍보 시설이다. 평소에 들어가 볼 수 없는 하수도관과 펌프실, 물재생센터가 생생히 재현돼 있어 어린이들의 현장 실습 장소로 인기다. 2013년에는 실물 크기의 하수도관과 물재생센터를 재현하는 등 볼거리를 더욱 강화했다. 전시를 관람하면서 태블릿 단말기를 통해 하수도의 구조 등에 관한 퀴즈도 풀어볼 수 있다. 물처리시설 상부를 이용해 조성한 '오치아이츄오 공원'도 시민들에게 인기다. 공원 내 수로와 연못에는 하수를 정화한 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른다. 또 물처리시설의 상부 공간에 어린이 광장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공원 내에 야구장과 테니스 코트도 갖추었다. 매년 여름 열리는 '오치아이 여름 축제'도 이곳에서 열린다.



① 신주쿠 교엔 공원

올 봄에는 벚꽃 길만 걸어요

서울의 강남과 여의도를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신주쿠는 도쿄 교통의 요지이다. 신주쿠역 하루 이용객만 약 35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하루 이용객 수가 제일 많은 역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동쪽의 신주쿠 공원에서 서쪽 도쿄 도청 사이에 이세탄 백화점, 오다큐 백화점, 마루이, 빔스 재팬, 키노쿠니야 서점 등 쇼핑몰과 명소가 빼곡해 지루할 틈이 없다. 빌딩 숲 속 허파 역할을 하는 신주쿠 공원은 일본 정원, 영국식 정원, 프랑스식 조경 정원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다. 4월이면 벚꽃이 만개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도쿄의 벚꽃 명소이기도 하다.

신주쿠 서쪽의 랜드마크는 도쿄 도청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단게 겐조가 설계한 건물로 유명하다. 제1청사, 제2청사, 도의회 의사당 3개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1청사 45층에 누구에게나 열린 전망대가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면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다. 청명한 날에는 후지산까지 보인다.

Shinjuku



① 도쿄 도청



② 신주쿠역

언제나 변화한 거리, 시부야의 에너지

신주쿠와 더불어 도쿄 3대 부도심으로 꼽히는 시부야는 도쿄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JR시부야 역 앞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로 유명하다. 5개의 횡단보도가 교차하는 도로 위, 최대 3천 명이 건널 수 있다. 하루에만 50만 명이 교차로를 건넌다고. 시부야역 맞은 편 큐프론트 건물에 자리한 스타벅스나 JR시부야역과 케이오 전철 시부야역 연결 통로는 수많은 인파가 길을 건너는 광경을 보기 좋은 명당자리로 인기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미야시타 파크도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1층부터 3층은 쇼핑과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상업 시설이고, 4층에는 잔디 광장과 암벽 등반 시설을 갖춘 구립 미야시타 공원이 자리한다. 미야시타 파크 산책 후엔 파르크, 도큐 핸드, 로트프 등 쇼핑몰을 둘러보기도 좋다.

Shibu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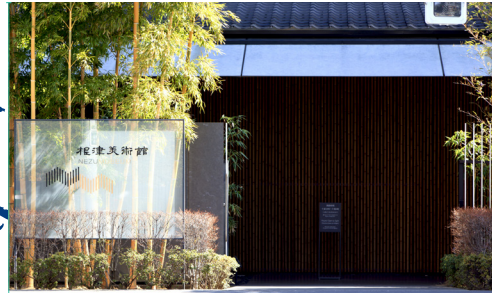
③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④ 요요기 공원



Harajuku



⑤ 네즈 미술관

하라주쿠의 활기와 네즈 미술관의 고요를 한 번에

하라주쿠에서 오모테산도까지 걸기 좋은 길이 이어진다. 하라주쿠 역 옆 요요기 공원은 봄이면 벚꽃나무 아래 돛자리를 깔고 벚꽃 소풍을 즐기는 피크닉 명소로 이름이 났다. 요요기 공원은 크게 A지구와 B지구로 나뉘는데 A지구 중앙에는 분수와 호수가 있으며, 호수를 중심으로 벚꽃, 매화, 장미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하라주쿠를 지나 오모테산도로 오면 건물 자체가 작품인 네즈 미술관을 마주할 수 있다. 토부 철도 사장을 지낸 실업가 네즈 가이치로의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 만든 사립 미술관이다. 네즈 가이치로가 일본, 중국, 한국에서 수집한 고미술품도 볼거리지만, 도쿄 올림픽 경기장 설계를 맡은 구메 겐고가 디자인한 본관과 정원이 신비로운 매력을 뽐낸다. 기다란 미술관 통로 옆으로는 대나무 숲이 펼쳐지고, 전시장 통유리 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정원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도쿄 여행의 끝, 고요한 정원에서 침포 같은 시간을 누려보자. ☁

스치듯 지나가는 봄의 흔적

글 이경민 전자신문 기자

3월 중순 한낮 서울의 기온이 15℃까지 오를 만큼 완연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동네 어귀마다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가 노란 꽃을 피웠고, 매화와 영춘화, 개나리가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봄의 절정을 알리는 벚꽃도 예년보다는 조금 이른 3월 말 남쪽에서부터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봄은 평균 3월 중순에 시작해 5월 25일경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속된 기후 변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상당히 오르는 탓에 봄꽃의 개화 시기도 지역에 따라 평년보다 5~6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남쪽의 대표적인 벚꽃 축제 장소 중 하나인 화개장터도 올해에는 다소 이른 시기인 3월 22일에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5월도 봄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기상학적 기준은 일평균 기온 20℃ 이상인데요. 5월의 낮 기온이 18~19℃에 이르며 여름 못지않게 덥다 보니 봄이 짧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현상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이상 고온이 잦아지면서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기상청의 기록에 따르면 중부지방에서는 2월 말~3월 초, 남부지방은 2월 중하순에 봄이 시작되는 경우도 찾아졌습니다. 당연히 봄이 끝나는 기간도 당겨졌습니다. 5월 10~20일 무렵이면 봄이 끝나가는 것이죠. 1994년, 1998~1999년, 2001~2005년, 2014~2018년, 2021~2023년 등 잦은 범위 내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매우 심해져 4월부터 더위를 보인 적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2016년 4월에는 꽃샘추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 4월 24일까지는 뚜렷한 더위가 나타나진 않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삼한사온의 의미는 사라진 채 말이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이상 고온이 잦아져 전국적으로 2월 하순에 봄이 시작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봄과 가을이 짧아진 원인을 지구의 온실효과와 엘니뇨 현상, 도시의 열섬현상을 들어 얘기합니다. 엘니뇨 현상이란 해수가 온난화되는 현상입니다.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나타나 동태평양 일대의 수온이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물의 온도까지 올라가니 더 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열섬현상은 산업의 발달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열과 전기, 난방시설 혹은 에어컨 실내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인공적인 열의 발생으로 인해 도심 지역이 주변보다 온도가 3~4℃ 정도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인은 한반도의 전체 기온을 상승시키고 점차 봄과 가을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무더운 여름과 기온이 상승한 겨울만 남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1년간 전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처음으로 1.5℃를 넘어선 사실이 유럽에서 관측됐습니다. 1.5℃는 국제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약속한 '마지노선'입니다. 결국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단연,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사막화,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오존 파괴 등인데요. 앞으로 더 더워지거나 추워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구를 위한 환경을 절실히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가솔린 차 덜 타기,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기 등 지구온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水

싱그러운 일상 속으로! 가드닝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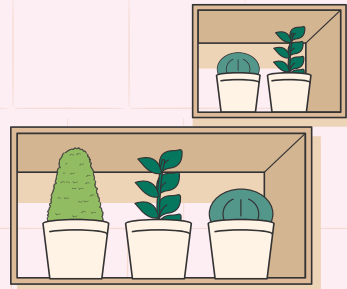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가드닝을 시작해보자. 가드닝이 어렵다면, 숲길을 걷고 주변을 둘러보며 나무의 소중함을 상기시켜 보는 것도 의미 있다.

글 전해정

우리집에 식물 하나를 심는다 해서 기후위기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력이 하나 둘 모이면 작은 날갯짓은 큰 파도가 될 거라 믿는다.

실제로 식물은 잎과 뿌리의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흡수해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 공기 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 평균 3.3제곱미터당 1개를 두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가드닝 공간에 머문 사람들의 긴장·우울·분노·피로 등 감정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려식물에 애정을 쏟는 과정에서 자기결정 능력·주체성 등이 올라가 불안이나 긴장 상태가 회복된다는 이유다. 식목일을 맞아 작은 화분을 하나 들여보는 게 어떨까? 지구와 내가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공기정화는 물론 음이온 배출까지! 산세베리아

담배 연기로 인한 공기 정화에 탁월한 양담쟁이

일산화탄소 제거에 효과적인 스파티필름

미세먼지에 좋은 식물, 고무나무

공중에 걸여 먼지를 먹는 클로로피텀

추천! 초보도 키우기 쉬운 공기 정화 식물 TOP 5

내일의 푸르름을 기대하며, 가드닝 ON

위의 'ON 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가드닝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공유해주세요! 주변에 이미 자리 잡은 식물들을 촬영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61페이지의 토퍼를 이용한 인증샷을 통해 실천 내용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4월 20일
선물 발송일 4월 30일경



CHAPTER 3

HOPE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 워터 포지티브. 물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 새로운 물의 가치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K-water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세요.

HOPE



자연과 인간의 미래를 위한 노력, 워터 포지티브

전 세계의 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물 공급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신규 수자원 확보가 정체된 가운데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첨단산업 발달로 물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 '워터 포지티브'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워터 포지티브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 자료 K-water 신성장전략단



미션! 워터 포지티브를 달성하라

맥킨지 등에 따르면 2030년 기준, 물 공급 대비 수요가 40%를 초과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는 우리 삶 전반에 물 공급의 불안정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반도체 파운드리 강국인 대만이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만에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때문이었다. 반도체 생산 시 하루에 약 10만톤의 물이 사용되는데, 가뭄 때문에 충분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웠던 것.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전국적 홍수, 2022년 광주 전남지역의 50년 만의 가뭄 등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홍수와 가뭄의 발생은 국민 생명과 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물 위기를 기업의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물 공급과 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실현 등 물 위기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워터 포지티브란, 단순히 물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복원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WATER POSITIVE

워터 포지티브란?

기업의 달성 목표로, 사용량보다 더 많은 물을 방류 또는 복원하여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 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유역 내 수자원 추가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



주요 글로벌 기업의 워터 포지티브 전략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전 세계의 물 수요는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규 수자원 개발사업의 정체, 수자원시설 노후화, 기후변화에 따른 증발량 증가 등으로 기존 담의 용수공급 능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에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했던 수자원 관리를 기업이 중심이 되어 워터 포지티브를 달성하는 등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물 사용량이 많은 글로벌 IT 기업인 Google, Apple 등을 포함해 식음료 기업 PepsiCo, 소비재 기업 P&G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워터 포지티브를 강조하며 실행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첨단기술을 통해 물 사용량을 줄이거나 빗물, 하수 등을 재이용하는 등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을 주축으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책임 있는 물관리를 실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 해소 및 용수 사용 효율화를 위해 각각의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리스크를 인식하고 워터 포지티브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목표를 설정하여 물 재이용 확대와 물 복원을 위해 노력 중인 것이다.

물 부족 해결에 나선 기업들의 움직임

 <p>삼성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나는 취수 필요량을 용수 재이용을 통해 2021년 수준으로 동결 •글로벌 수자원 발굴 프로젝트와 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물을 쓴 만큼 100% 사회 환원 	 <p>메타(舊 페이스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워터 포지티브 달성 목표 •용수 접근 개선 등 수자원 복원 프로젝트 (25개, 235만m³)에 투자 •첨단 증발 냉각 시스템 구축으로 용수 효율성 향상
 <p>구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소비되는 물의 120% 회복 추진 •습지 조성 등 유역 물 건강 프로젝트 시행 •홍수 예측 시스템 개발 	 <p>애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 물 재이용율 향상 등 담수 의존도 저감 지원 •지역 물 문제 해결사업 참여
 <p>아마존웹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을 여러 번 재사용하여 냉각에 소비되는 물을 최소화 •데이터센터의 냉각수 중 최대 96%를 지역 농부들에게 무료로 제공 	 <p>마이크로소프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 Water Positive 달성 목표 •데이터센터 新냉각 시스템 도입 •유역 보호와 습지 복원 등으로 유역 물 확보




워터 포지티브를 지원하는 K-water의 움직임

K-water는 세계 최고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신규 인프라 확충, 물 관리 디지털 전환 등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원 연계, 대체 수자원 개발 등 2030년까지 기존 대비 20% 증가한 Water Storage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water는 지난 2022년 글로벌 용수 사용량 100% 환원을 선언한 삼성전자와 함께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반도체 사업장에서 재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용수의 양은 하루 약 47만 4천톤, 연간 1억 7,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워터 포지티브 개념은 아직 도입단계로, 사용량, 방류량, 복원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산정기준, 인증방식 등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K-water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워터 포지티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 기업과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환경부와 K-water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CDP Korea와 기후변화 대응 및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물은 우리 모두의 공통 자산이며, 그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보호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다. K-water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 위기를 해소하며 나아가 워터 포지티브 이행을 위한 수자원 복원사업 추진 등 정부, 기업,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물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선도하는데 앞장 서겠다. 



FOCUS 1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로 도약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

전국 최초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집적 단지인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이 지난 3월 11일,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글 편집실 사진 연합뉴스

소양강 심층수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이 개최됐다.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춘천시 동면 일대 81만 6,000㎡(약 25만평) 규모로 조성, 총 3,607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데이터 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이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40%가 뜨거워진 서버를 식히는데 사용된다.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이 가지고 있는 5억 톤의 차가운 심층수를 데이터센터의 냉각수로 활용하며, 냉각수로 사용되어 데워진 물은 다시 스마트팜 난방에 사용된다. 이로써 기존 냉난방 대비 64%에 달하는 전력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입주 시 30년간 7,3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이 되다

이날 착공식에는 춘천 지역의 초·중·고 학생, 대학생 등 다수 주민과 스마트팜 관계자, 데이터센터 입주 희망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

했다. K-water 윤석대 사장은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과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라는 3가지 핵심 국정과제가 맞물려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다"라면서,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water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성공사례로 만들어 앞으로 수열에너지, 수력발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거점의 탄소중립 클러스터를 조성해 녹색성장을 이루고, 전국의 맴 주변지역을 관광, 문화, 지역의 고유 브랜드가 어우러진 로컬 콘텐츠 타운으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감도



블루골드 시대가 도래하다 세계 물의 날 기념식·국제물산업박람회 참가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과 더불어 제2전시장에서는 '제21회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4)'도 함께 개최되어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글 편집실 사진 김은주




안전한 물, 함께 누리다

유엔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평화를 위한 물의 활용'이다. 우리나라는 공존과 협력의 의미를 확장해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주제를 정하고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혁신 물기업

한편 제2전시장에서는 '제21회 국제물산업박람회'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국제물산업박람회는 물산업 신기술 및 제품 정보를 볼 수 있는 국내 물 분야 최대 규모 전시회로, 관련 기업 166개사가 참여해 500여개 부스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였다.

K-water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혁신 물기업'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AI 정수장, 디지털 트윈, 스마트 관망 관리 등 물분야 초격차 기술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및 AR ZONE에서는 K-water의 스마트한 안전관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선도적인 미래 기술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K-water는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공동기업관도 운영했다. 공동기업관에는 해외시장개척단, 미국 CES 혁신상 수상 기업, 협력 스타트업 등 20여 개 기업이 함께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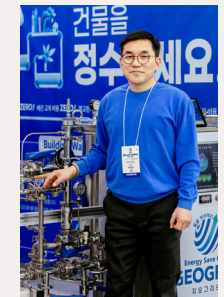
MINI INTERVIEW



K-water는 국민에게 최고의 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중소기업과 협력해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혁신 물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water 수도권리처 정영빈 대리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 정수 플랜트를 선보였는데요. 수돗물을 이온화하여 수도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과 친환경 필터 기술, 실시간 수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IT 기술 등이 융합된 제품입니다. K-water와 함께 물산업 성장에 꼭 필요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오그리드 박봉두 이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배관 내부를 흐르는 액체·기체의 쓰레기나 이물질 등을 분리 또는 제거하는 부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배관에 사용되고 있죠. 에너리트는 앞으로 국내는 물론 동남아시아,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힘 쓸 예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너리트 김명기 대표

이번 박람회 참여는 우리 회사의 탁도를 측정하는 수질 센서 제품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센서 모듈 형태였으나 K-water의 지원으로 독립 탁도 측정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어 지원해주신 K-water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테웨이브 킴태우 이사

#1 2024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참여



지난 3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고자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올해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이를 기념해 유공자 포상과 학술회, 국제물산업박람회 등이 준비되었다. K-water는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깨끗한 물 환경 보존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별 하천정화 활동 등을 실시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2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후위기 시대에 물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현안이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와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내 대기업 등이 손을 맞잡는다. 환경부와 K-water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CDP Korea)와 기후변화 대응 및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 구상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체결로 국가적인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3 K-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세계에 전수



베트남과 업무협약 체결

캄보디아와 물 분야 협력 확대

K-water는 지난 3월 15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각각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해 물관리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water는 그간 축적한 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 등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과는 기후위기 대응 물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및 디지털 물관리 기술 협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윤석대 사장은 "앞으로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그린 인프라 분야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력이 확대되어 수요국에 맞춤형 녹색산업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실시



K-water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3월 18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신규 채용 예정자 등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신입사원들은 주요 직무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이미지 브랜딩부터 비전 드로잉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하였다. 아울러 3월 27일 윤석대 사장은 신입사원들과 함께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열정과 도전정신을 갖고 K-water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의 출발에 대한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5 13대 노조 첫 노사협의, 주차환경 개선 등 합의



K-water 노사는 지난 3월 20일 금년도 첫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석대 사장과 박기찬 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근무시간 총량 관리제 등 5건의 보고안건 논의에 이어 주차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5건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현안에 합의했다. 특히, 노사 양측은 모두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한 깊은 공감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사측은 새롭게 출범한 노동조합의 고민과 열정을 응원하였고, 노측은 열린 마음과 상호 신뢰로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를 함께 만들자고 화답했다.

나의 오랜 친구

나의 오랜 가족

보리와 함께한 가족 사진 촬영



(윗줄)
동생 하종욱 씨, 아버지 하재찬 씨
(아랫줄)
물관리기획처 하상화 대리, 어머니 표명자 씨, 반려견 보리, 동생 하종원 씨

©별사진관

부모님과 세 남매, 다섯 명의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에 반려견 '보리'가 함께하게 된 건 15년 전이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하상화 대리는 어느새 30대가 되었고, 작은 강아지였던 보리는 어느새 노견이 되었다. 반려견과 산다는 건, 어쩌면 무한하고 순수한 사랑을 거저 배우는 것과 같다. 가장 순수한 눈빛으로 사랑을 나누어준 하상화 대리 가족의 막내 '보리'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글 박향아 사진 김은주 촬영협조 별사진관

디어 마이 프렌즈, 나의 오랜 친구 '보리'

가족들은 여전히 '2009년의 어느 겨울날'을 기억한다. 반려견 보리가 우리 집에 와 가족이 된 날이다. 이웃집의 강아지가 낳은 아이들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녀석이 눈에 밟혀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고, 걱정과 달리 보리는 형제들 중에 가장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하상화 대리는 "사춘기 시절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보리였어요"라며 오랜 옛 기억을 꺼내냈다.

"두 살 터울인 쌍둥이 남동생과 참 많이 싸웠거든요.(웃음) 그때마다 우리 보리가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무뎠던 넘길 수 있게 해준 일등공신이 바로 보리예요."

학창 시절, 세 남매에게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가 되어준 보리는 이제 엄마 아빠를 웃게 하는 기특한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남매가 대학 입학과 취업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자식들의 빈 자리를 보리가 대신 채워주고 있는 것. 아버지 하재찬 씨는 "사실 다들 한집에 살 때도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반겨 주는 것이 보리였어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으셨다.

하상화 대리가 '어느 멋진 날' 코너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을 신청한 것도 '보리와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용기를 낸 것. "우리 보리를 보면 아직도 아기 같은데, 벌써 16살이 됐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활동량도 부쩍 줄었고요. 그래서 보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보리와 우리 가족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었어요. 사진을 보면 '행복한 오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죠."

사진을 찍는다는 건, 찰나를 영원히 간직하는 마법 같은 일. 가족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한 장의 추억 속에 간직하기로 했다.



2011년
우리 보리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랑!

2014년
동생 입대 전 보리랑 가족 여행 중에

2018년 2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귀여운 보리

2019년
새 이불을 제일 좋아하는 보리

2020년 4월
보리랑 아라뱃길 벚꽃 구경 간 날♡

7년 만에 다시 찍는 가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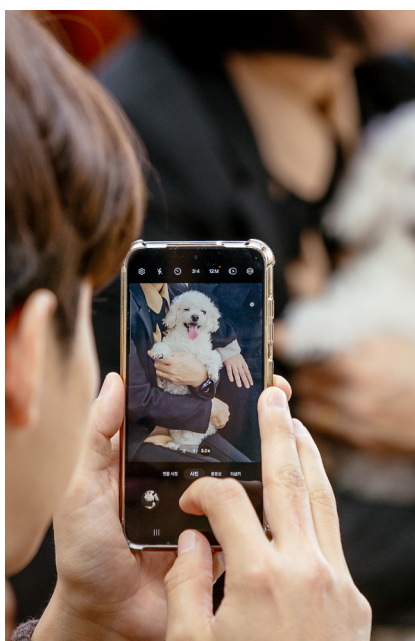
하상화 대리의 집 거실에는 7년 전 촬영한 가족사진이 걸려 있다. 하상화 대리의 대학 졸업을 기념하며 보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촬영한 첫 번째 가족사진이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려던 액자의 위치가 살짝 구석으로 옮겨진 건, '우리 가족 같지 않게 나온 사진'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카메라 앞에서 긴장한 모습이 사진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어두운 배경과 어색한 미소까지 더해 내가 알던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늘 아쉬움이 남아 오늘은 사진 속에 화목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잘 담겼으면 좋겠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신나는 음악과 가족을 위해 준비된 피크닉 콘셉트의 세트. 오늘은 즐거운 가족의 모습이 사진 속에 오롯이 담길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서로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고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연습까지 마치고 나니, 드디어 본격적인 가족사진을 촬영할 시간이다. 밝은 조명이 켜지고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고 등장했다. 연습이 무색하게 입꼬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미소 짓는 표정에 어색함이 더해진다.

이때 가족을 다시 웃게 하는 건 역시나 보리다. "자, 가족분들 다 같이 보리 한 번 볼까요?" 사진 작가님의 요청에 보리를 보자마자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엄마 품에 꼭 안기는 보리의 모습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활짝 웃게 된다. 보리를 향한 가족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순간이었다.



나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or.kr/for

오늘 가족사진 촬영 어땠나요?



하상화 대리
무뚝뚝한 딸이라 표현을 잘 못했는데, 오늘 이벤트 덕분에 가족을 향한 애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게 되었네요. 사진 속 모습처럼 가족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믿음직스러운 딸, 친근한 누나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보리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길.



아버지 하재찬 씨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하긴 한데, 가족들과 함께여서 웃으며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촬영한 사진을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둘 예정인데요. 볼 때마다 즐거웠던 오늘 이 시간이 떠올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보리야! 예쁜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표명자 씨
예전에 찍은 가족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찍자고 말했었는데, 우리 딸 덕분에 행복한 가족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보리까지, 사진 속 모습처럼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



하중원 씨
'가족'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독립을 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늘 아쉬웠거든요. 오늘 촬영하면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준 보리! 건강하렴!



하중욱 씨
가족 모두가 모여서 다양한 콘셉트로 촬영하는 과정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다른 뜻 닮은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었고요. 이런 시간을 선물해 준 보리에게 고마워요. 보리야 사랑해!

추억을 되새기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트 배경을 바꿔가며 가족사진을 촬영하다 보니, 가족들도 어느새 카메라에 익숙해졌다. '찰칵'하고 울리는 셔터를 사이로 들리는 가족의 대화 속에는 지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상화가 20개월 때 쌍둥이 동생들이 태어나면서, 너무 빨리 누나 역할을 해야 했어요. 어릴 때 엄마를 도와 동생을 돌볼 만큼, 뭐든 알아서 잘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죠. 아이고, 왜 눈물이 나오지."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엄마 아빠 딸이어서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다"고 말하는 하상화 대리. 실제로 세 남매에게 부모님은 닮고 싶은 롤모델이다. 아버지는 건축사로 일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사회복지사인 어머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나누는 삶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으니 말이다.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 아래 잘 자라서, 사회에서 제 몫을 하고 있으니 감사하죠. 무뚝뚝했던 아버지는 제가 독립한 후로 종종 전화해서 '밥은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시고, 엄마는 집에 갈 때마다 반찬을 한 아름 챙겨주시죠. 첫째 남동생은 이제 곧 결혼해서 자신만의 가정을 만들게 됐고, 둘째는 부모님과 보리를 살뜰하게 챙겨주고요. 이런 가족이 존재하기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함께 만든 지난 추억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 오고 가는 사이에 도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셔터. 자연스럽게 번지는 가족의 환한 미소가 뷰파인더에 오롯이 담겼다. '찰칵' 함께여서 행복한 '지금'이 '추억'이란 이름으로 영원히 간직되는 순간이다. ✨

EVENT

나의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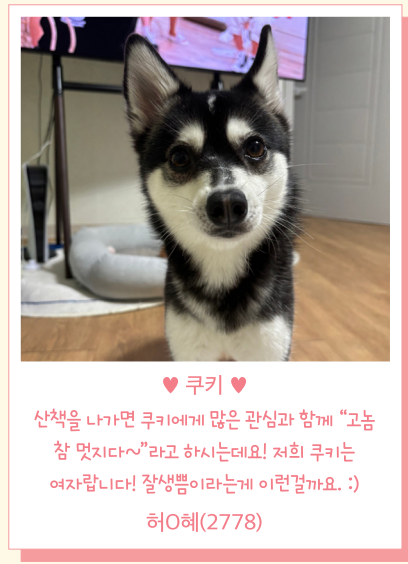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이벤트에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을 보내주신 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이 봄, 무한한 사랑을 주는 반려동물과 함께 꽃 길만 걸길 바라요♥



♥ 이치와 레이 ♥
우리는 양속 아닌 절친 사이!
작지만 용감한 강아지 이치와 산책을 좋아하는
고양이 레이가 함께 살고 있어요!
심O윤(2123)



우리봄이 소개
♥ 봄 ♥
봄이는 그 이름처럼 활기차고 사랑받는 여자아이입니다.
봄이가 주는 사랑과 충실함으로 인해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따뜻해졌죠.
조O일(8704)



♥ 쿠키 ♥
산책을 나가면 쿠키에게 많은 관심과 함께 "고놈
참 멋지다~"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쿠키는
여자랍니다! 잘생뎠어라는게 이런걸까요. :)
허O혜(2778)



♥ 복돌이 ♥
귀여운 꼴보지만 호기심이 강한 복돌이입니다.
복돌이는 저에게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전O주(4945)



♥ 밍키 ♥
아파트 앞 호스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겨우 마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낭준한 밍키입니다~
늘씬하죠?!
성O현(1634)



♥ 코코 ♥
등근 얼굴에 호기심 가득한 눈,
호기심이 많아 하루종일 바쁜 우리 코코!
코코는 사실 강아지가 아닐까요?
이O순(0388)



ISSUE CHECK

본방 사수는 이제 옛말! 코드커터족의 등장



거실의 TV 앞에 온 가족이 모여 본방사수를 하던 일상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OTT와 인터넷 방송 등이 미디어를 장악하면서 생겨난 '코드커터족'이라는 말의 개념과 함께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해정

코드(Cord)로 연결된 것을 끊어낸다는 의미의 코드커터족(Cord Cutters). 기존의 TV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방송을 보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 방식의 TV 시청을 탈피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휴대가 용이한 기기를 활용해 원하는 미디어를 마음대로 시청하다 보니 '본방 사수', '다시 보기' 등의 용어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 TV 미보유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코드커터족의 주 연령대는 20~30대로 집계되고 있다. 방송사들은 '빨리 감고, 건너뛰고, 요약해서' 시청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TV 방송을 등지는 코드커터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따뜻해지면 찾아오는 춘곤증, 춘곤증이 마음의 문제라고?



삼한사온이 지나고 봄이 완연해지면 갑작스러운 일조량 변화로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생체리듬이 깨지곤 한다. 이때 춘곤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절의 변화로 싱숭해진 몸과 마음을 슬기롭게 극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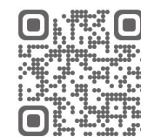
글 오미영(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

“ 날이 따뜻해져서 일까요? 허풍이 뽐추질 않아요. 춘곤증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는데, 어쩍 일인지 기분도 속 차지는 것 같아요. 춘곤증이 마음의 병인 걸까요? ”

봄이 완연해지면 나른함과 무기력감, 낮에 졸음이 오는 증상을 동반하는 춘곤증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진다. 춘곤증은 봄철에 생기는 생리적인 피로감으로 따뜻한 봄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절이나 날씨 등에 따른 기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피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완화된다면 적절한 예방관리를 해주면 된다. 하지만 춘곤증에서 시작해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식욕/체중과 수면에서의 변화도 동반된다면, 우울증일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우울감으로 번질 수 있는 춘곤증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힘든 고민이 있나요? 혼자 간직했던 고민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담해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20~30분 정도 실시한다.

햇빛을 보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무기력한 기분을 줄이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을 주어 신체 건강에도 유익하며, 숙면 효과도 있다. 또한 밖에 나가 꾸준히 운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답답한 마음이 나아질 수 있다.



두 번째, 하루 권장량 이상의 카페인 섭취를 피한다.

피로와 졸음이 몰려오면 보통 커피를 적정량 이상 마시게 된다. 하지만 하루 권장량 이상 카페인을 섭취하면 신경과민, 두통, 불안과 불면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춘곤증으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고자 평소보다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뇌의 산소 부족으로 피로와 졸음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신체 건강에도 해롭다.



세 번째, 춘곤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상담을 받아본다.

봄이 오면 각종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 분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에 인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율 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감, 춘곤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심해진다면 정신건강학과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춘곤증이 지속된다면 그 증상은 우울감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Counselor. 오미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졸업,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 레지던트 수료,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교수 및 임상심리 수련감독자 역임 등을 거쳐 현재 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 아이 설명서> 등이 있다.



날씨 좋은데, 나올래?

꽃샘추위가 지고 지천으로 꽃이 만발하는 4월은
피크닉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봄 피크닉 명소와 함께하면 좋은 축제 리스트를 소개한다.

글 문수민



대구 두류공원

대구 남서 지역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심 속 휴양지, 두류공원. 잔디밭, 분수, 피크닉존 등이 있어 봄을 만끽하기 좋다. 이맘때면 두류공원에는 벚꽃이 지천으로 핀다. 벚꽃길을 따라 이월드 83전망대 앞에 서면 빨간색 이층 버스가 있는데, 이곳이 제일 인기가 좋은 포토존이다.

+함께 즐기면 좋은 벚꽃 축제
이월드 블라썸피크닉 [라라랜드]
| 5월 31일까지
장소 이월드



대청공원

대청공원은 대청호와 대청댐을 벗삼아 걷기 좋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넓은 광장이 있어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이곳에서 지난해 대덕구 대표 축제로 첫선을 보인 대덕물빛축제가 다시 열린다. 설화 속 고래를 모티브로, 숲속의 바다로 연출한 환상적인 야간경관이 포인트다. 대청교에서 보는 대청댐의 수려한 야간경관도 놓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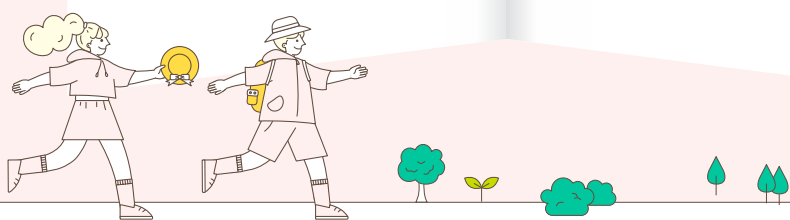
+청풍호반에서 만나는 봄 축제
대덕물빛축제 [대청호, 고래 날다]
| 5월 6일까지
장소 대청공원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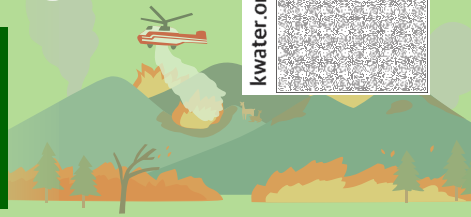
일산 호수공원

일산에 위치한 생태·호수공원으로, 개장 당시 동양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라는 타이틀로 유명세를 치렀다. 호수를 낀 공원의 풍경이 고즈넉하게 펼쳐져 물멍하기에도 안성맞춤! 향긋한 장미공원과 자연학습원, 동물원 등도 있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제격이다.

+호수공원에서 만나는 K-플라워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 5월 12일까지
장소 일산 호수공원



산불 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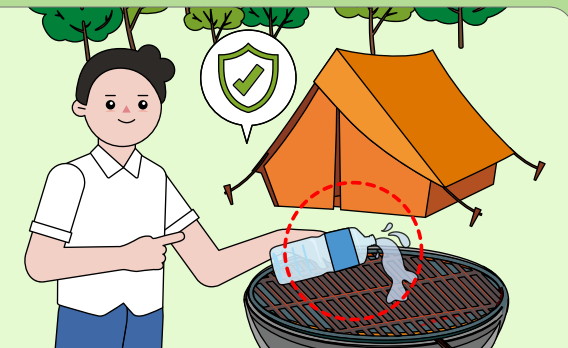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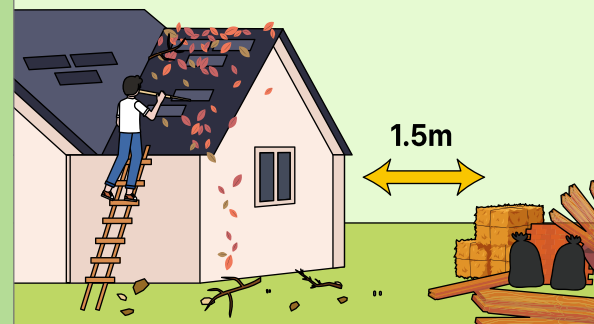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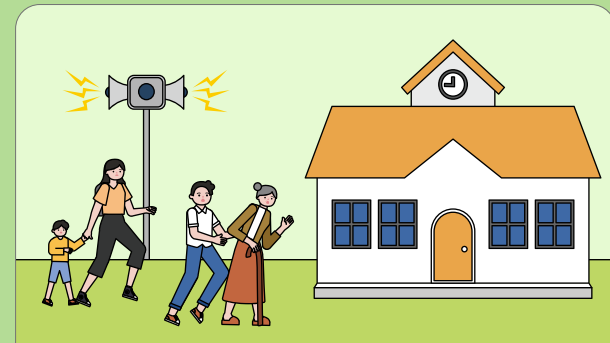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야영하기
※ 화기 사용 후
불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



쓰레기, 건조, 건축자재 등의 가연물은
되도록 집에서 먼 곳에 보관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공터 등



강O정 010-****-6153



황O정 010-****-3775



김O운 010-****-5722



한O섭 010-****-4422

<물, 자연 그리고 사람> 3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3월호 '종이팩 분리배출 ON' 챌린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4월호 '가드닝 ON' 챌린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휴지로 재탄생

#씻고 펼치고 말리고 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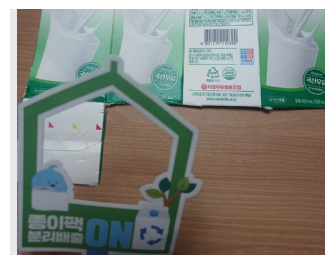
배O숙 010-****-2423



윤O균 010-****-1839



연O열 010-****-5421



박O준 010-****-6323



정O진 010-****-8024



김O빈 010-****-0151

#kwaterAI정수장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by_yunseul | @manmannoo | @i.m.youri
@leedud1 | @eat_food_kimlee |
@hanabeestar | @myeyes_33
@mjh4357 | @kimpilimi | @music_baby0

3월호 사보와 함께하는
사진 퍼즐 맞추기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토이 카메라 2명
김O리 010-****-8576
강O림 010-****-7321

<나의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반려동물 용품
심O윤 010-****-2123 성O현 010-****-1634
이O순 010-****-0388 조O일 010-****-8704
허O혜 010-****-2778 전O주 010-****-4945

※4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방울이와 함께 하는 가드닝 ON 챌린지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가드닝을 시작해보자. 가드닝이 어렵다면, 숲길을 걷고
주변을 둘러보며 나무의 소중함을 상기시켜 보는 것도 의미 있다.



1~6월호까지 모든 방울이 딱지를 모은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내일의 푸르름을 기대하며, 가드닝 ON
38페이지의 'ON 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가드닝을 실천하는 모습을 공유해주세요!
주변에 이미 자리 잡은 식물을 촬영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위의 토퍼를 이용한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4월 20일 발송일 4월 30일경



폭풍적 즐거움 가득♥ K-water와 #소통하기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kwatertv

[성심당쉐프PICK] 성심당 딸기 케이크 만들기

[시즌2 EP.18 - 워터포스 가디언]

K-water 홍보실 방울이와 대전 향토 기업 성심당의 성심이 만났다고!
방울이와 성심의 딸디달고 딸디단 딸기 케이크 만들기~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워터포스가디언 #성심당 #성심이 #딸기시루 #딸기모짜르트 #케이크
#대전 #성심당빵 #아이브 #안유진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aterworld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2024 상반기
K-테스트베드 과제 공모
혁신 아이디어의 실증을 원하세요?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사랑 더 맛있게
먹는 꿀TIP!★
거울 속 나 자신과 함께
먹는다
#사탕 #막대사탕 #셀프 #화이트데이
#나에게 #선물 #울지마 #바보야

온통 핑크빛으로 물든 봄
소중한 사람들과 나들이 떠나기 좋은
봄꽃 축제 명소를 소개합니다!
#꽃축제 #명소 #벚꽃 #매화
#유채꽃 #진해군항제 #광양매화축제
#휴애리유채꽃축제 #여의도봄꽃축제

이 세상 K-직장인 #공감톤
EP. 21 태양 같은 선배♥
수분이는 방울이에게 물 같아
꼭 필요한 존재거든♥



만우절 이벤트

최고의 거짓말쟁이를 찾습니다!



올해 '거짓말처럼' 꼭 이루고 싶은 희망 소식을 보내주세요.

행복한 거짓말에 동참해주신 분 중
10명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ex) 5년만에 우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원하던 기업에 합격했어요! 로또에 당첨됐어요!

이벤트 경품 커피&디저트 기프티콘 10명
참여 방법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및
1:1 채팅방으로 내용 보내기

접수 마감일 4월 20일
발송일 4월 30일경
※당첨자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